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1.(수)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시	2026년 11월 11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순열**	☎044-300-7110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중앙공원 2단계 장남들,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보존해야”

- 11일 제1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중앙공원 2단계, 생태환경 보전·지속가능한 관리·현지 보존형 생태박물관 조성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공원 2단계 장남들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곳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 못지않게 자연과 생태의 보전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가치”라며, 장남들의 논과 습지는 도시의 열을 완화하고 다양한 생명의 서식처가 되는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LH 설계 자료에서 중앙공원 1단계에는 이용형 공원시설을 집중하고, 2단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생태공간으로 계획한 점을 언급했다. 특히 2단계 약 87만㎡ 중 약 30만㎡를 '공

생의 들'로 계획해 논 습지와 둠벙, 초지 등 기존 생태환경과 농경 경관을 보존하도록 한 취지를 실제 조성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행복청이 중앙공원 2단계 설계를 재개하고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이 장남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중앙공원 1단계와 호수공원이 다양한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2단계 장남들만큼은 기존 생태를 보존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중앙공원 2단계 실시설계 시 장남들 논·습지 보전 최우선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과 생태적 편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 ▲시민과 함께 지켜가는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 조성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과도한 시설 설치와 인위적 관리를 최소화하고 자연의 회복력과 기존 생태계를 활용하는 한편,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 관찰과 환경교육 또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남들을 인근에 조성 중인 국립 박물관단지와 연계해 논과 습지, 그 안에 깃든 생명과 사계절의 변화 자체가 전시물이 되는 '현지 보존형 야외 생태박물관'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첨단산업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종의 미래를 장남들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장남들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해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